

## 코미디의 생성과 발전

작가 나성욱

희극(喜劇)은 유럽어의 코미디(Comedy)의 역어로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komodia 로, 이것은 주연(主宴)을 뜻하는 코모스(komos)로부터 노래를 뜻하는 오이데(oide)를 의미한다. 주신 디오니소스의 축제 때, 유쾌한 노래를 부르며 조용히 돌아다니고, 평소에 달갑지 않게 여기던 무리들을 뒤흔어주는 무례한 짓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에서의 희극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웃음거리를 섞어, 보는 사람을 웃기는 연극을 희극이라면, 서(西)유럽에서는 단지 웃기는 것만을 노리는 소극(笑劇)이나 보드빌(vaudeville) 등의 장르가 있다. 보드빌은 노래·춤·만담·극예 등을 섞은 일종의 쇼(show)로서 요사이 흔히 보는 버라이어티 쇼(variety show)와 거의 같은 것이다. 또 노래와 춤을 섞은 경(輕)희극이나 풍자적인 유행가를 말하기도 한

다.

이러한 것을 일괄하여 넓은 뜻으로 코미디라는 말이 씌어지는 수가 있으며, 이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스꽝스럽고 유쾌한 극을 가리키고 있다. 소극이나 보드빌 등과 구별하여, 좁은 뜻으로 코미디라고 하는 경우에는 문학적으로 세련되고, 그것을 읽고 보는 것이 예술적인 것을 지칭한다. 또한 쾌감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시사(示唆)하는 듯한 그러한 극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그다지 명료하지도 엄격하지도 않고, 소극(farce)에도 15세기 프랑스의 《바트랑 선생》과 같이 훌륭한 문학적이고 예술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코미디라고 하는 말은 전체적으로 비극적이더라도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극에 적용되는 수도 있다. 18세기의 시민사회에서 취재한 오늘날의 시민극이라고 불리는 참되고 진실한 극이 당

시“ 진지한 희극”(comédie sérieuse)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제창된 것 등은 그러한 부문에서 두드러진 예이다.

소극과 보드빌이 엄격한 뜻에서 희극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해학·흥내·차각·미끄러지거나 뒥군다고 하는 곡예적인 연기 등의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데카넵한 수단으로서 관객을 웃기고, 그러한 내용과 동작은 그것만으로 틀림없이 정신의 위안이 된다. 하지만, 사회라든가 인간이라든가 하는 것에 맞붙어서 관객의 정신을 한층 더 풍족하게 하는 것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이다.

비극과 대칭을 이루는 희극은 그래서 사람을 웃기는 연극이나 해피 엔드(happy end)로 끝나는 연극을 말하는데, 익살을 부려 웃기는 장면이 많은 연극인 희극(戲劇)과는 구별된다. 결론적으로 좁은 뜻으로서의 희극 속에는 풍자극·갈등 희극·성격 희극·풍속 희극·심리 희곡 등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희극적인 내용의 가극을 가리켜 희가극(喜歌劇)이라 칭한다. 노래 외에 대사와 경쾌한 음악이 수반되며 희극적이고 익살스러운 내용으로, 해피엔드로 끝난다. 《피가로의 결혼》, 《돈조바니》, 《세빌랴의 이발사》 등이 유명한데, 일명 코믹 오페라, 오페라 부파(opera buffa),

오페라 코미크(opera comique)라고도 부른다.

희극(喜劇)하면 희극영화를 연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웃음을 자아내는 내용의 영화를 지칭한다. 사람의 웃음을 유발하는 요인 그 자체는 결코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요인에 따라 크게 나누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로, 배우의 개성이나 연기에 주체를 두고, 영화의 특성을 이용한 트릭(trick) 주격에 의한 슬랩스틱(slapstick)이 있다. 슬랩스틱은 원래 어릿광대의 끝이 갈라진 타봉(打棒)을 의미하는데, 전(轉)하여 익살맞은 활극, 치고받는 희극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a slapstick comedy하면 활극적인 희극을 지칭한다.

둘째로, 각본이나 연출에 주체성을 두어 시츄에이션(situation)의 흥미를 꾀한 것의 두 종류가 있다. 라디오나 TV에서, 같은 배우가 매일 장면을 바꿔 연기하는 연속 코미디가 시츄에이션 코메디(situation comedy)다.

초기의 코미디 영화는 무대의 무언극(無言劇·pantomime) 배우의 이입(移入)에 시작되며 1905년 최초의 작품을 낸 프랑스의 랭데(M. Linder)가 그 시조로 불린다. 1912년 세넬(M. Sennett)가 슬랩스틱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상식을 초월

## 기술표준가족

한 움직임으로 관객의 웃음을 만족시켰다. 이 세네트 후에 나온 영국 태생의 영화배우·감독 채플린(C. Chaplin:1889~1977)은 여기에 인간성을 가미하여 시튜에이션 코미디와 종합시킨 희극의 원형을 완성시켰다.

또 로이드(H. Lloyd)는 미국인의 굽히지 않고 명랑한 시민성을 대표하며, 웃지 않는 희극배우 키튼(B. Keaton)과 함께 희극의 3대 스타로 불리웠다. 배우중심의 희극은 발성영화(talkie) 이후 세네트 희극의 현대화인 마르크스(Marx)형체를 낳고, 로이드의 후계자 스켈튼(R. Skelton)이나 만담 형식의 로렐(S. Laurel)과 하디(O. Hardy), 아보트(B. Abbot)와 코스텔로(L. Costello)의 팀에서 차츰 세련되어 봄 홉프(B. Hope)나 다니케이(D. Kaye)

에 이르고 있었다.

TV를 통한 토크쇼가 성행하고, 한편 영화가 예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시튜에이션 코미디는 그 폭과 깊이를 더하여 정희극(正喜劇)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회·풍속·정치를 풍자하여 거의 정통적인 극으로 발전하여 갔다. 채플린의 정치희극 《독재자》(1940), 캐프라(F. Capra)의 《어느날 밤의 사건》(1934), 《우리집의 낙원》(1938) 등의 사회풍자극이 한때 풍미하였다. 클레르(R. Clair)의 《백만장자》(1931), 《파리제(巴里祭)》(1933), 《최후의 억만장자》(1934) 등은 환상적인 풍자희극으로 각기 그 독창성과 독자성을 맘껏 발휘했다. 